

해남, 물김위판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

해남군의 2024년산 물김위판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물김위판액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 종료일인 4월말까지 1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산 김양식을 위해 8237ha 면적에 16만 4740여척을 시설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화산 구성위판장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만 7360t으로 4월말까지 최대 6만 5000t의 물김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물김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마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

위판 종료하는 이달 말까지 1200억 예상
마른김 수출 증가로 물김 가격 상승 이끌어



서 국내 김 재고물량이 감소되어 원재료인 물김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경우도 전년 대비 양식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으로 평균 수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업체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초기 채묘시기에 갯병 발생이 적어 고품질의 물김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남군은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인증 부표 보급과 김 어망 및 김 육상채묘지 원 등 김 양식 관련 16종 사업에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김 양식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2024년산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전남도 지방세정 평가 '대상' 수상

"납기내 징수율 등 향상"

진도군은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수확충, 세외수입, 세정운영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32개의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군은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면서 상급 1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책임징수제 운영, 채납재산 전채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신고, 상담, 납부민원 등을 한 번에

통합으로 처리해 한층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은 이번 지방세정 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상 수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도군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선진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도군청 공직자들이 세정업무에 집중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규세원 발굴과 세입확충,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무안, 비상하는 일자리로 생동하는 '행복 무안' 실현

7개 분야 219개 사업에 734억 원 투입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만2267개 창출

무안군은 고용률(15세~64세) 65%, 취업자 수 49,000명,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2,267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2024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선 8기 2차년도 무안군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대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용률(15세~64세) 65%, 취업자 수 49,000명, 상용근로자 수

21,6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6,900명으로 2024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는 12,267개 창출하되, 단기적·계절적 일자리를 지양하고 정규 일자리를 확대하며 직업훈련, 취업·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안군은 5개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해 50개 사업에 1,256억 원

을 지원해 9,732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안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 조성으로 2019년 81,105명에서 2020년 86,132명, 2021년 91,107명, 2022년 90,608명, 2023년 90,296명으로 꾸준히 증가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오룡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 12만 명의 도시가 되면 무안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2년 말 기준 9만 6백 명이며, 평균연령 또한 43세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무안=김삼문 기자

'형형색색 백만 송이 튼リップ' 신안 임자도 축제 내일 개막



신안군은 임자도 '2024 섬 튼リップ 축제' 개막식을 오는 5일 튼リップ·홍매화 정원의 튼リップ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되

는 섬 튼リップ축제는 '누려라!!! 느껴라!!! 즐겨라!!! 형형색색 튼リップ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체험거리로는 승마, 캐리커져

그림 그리기, 압화 엮서 만들기 등이 있고, 버스킹 등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막식에 맞춰 형형색색의 튼リップ꽃이 만개하여 임자도 대광해변과 함께 어우러지는 섬 튼リップ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백만 송이의 다양한 튼リップ꽃이 피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되었다"라며 "축제장을 방문한 모든 분에게 튼リップ의 꽃봉오리처럼 희망을 안고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안=강축복 기자

영암, 행안부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 원 확보... 소비·투자 실적 좋은 평가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전라남도의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에 이은 쾌거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는 '하반기 재정집행' 및 '3·4분기 소비·투자' 부분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영암군은 예산 9,127억원의 82.4%인 7,525억원의 재정집행을 달성했고, 소비·투자 부분에서 목표액 1,057억원의 136.5%를 초과한 1,443

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예산·지출사업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률 제고에 나섰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 실적과 부진 사유를 수시 점검한 점, 정부의 재정집행 지침을 준수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김형두 기자

"200만그루 서부해당화 '활짝' 강진으로 놀러오세요"

6~14일, 9일간 남미륵사 일원서 봄꽃축제

"20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가 활짝 핀 강진으로 오세요"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대 서부해당화 군락지인 남미륵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봄나들이 축제다.

강진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봄철 수많은 남미륵사 방문 관광객을 강진읍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

이번 축제는 봄축제 특성상 중·장년과 커플이 주 타깃이다. 길러온 쉼의 꽃에 집중, 축제장을 방문한 관

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체류시간을 대폭 늘린다.

개장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남미륵사 주차장과 탐방로 일원에서 열리며 폐막공연은 14일 오후 4시 지역 가수와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관람객들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강진 반값 가족여행'이다. 축제 기간 중 테마여행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 낸다. /강진=한홍수기자

해양치유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거어보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